

주가	환율	금리
-9.22	-0.36	+0.02
1,315.73	959.20원 (원/달러)	4.76%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1.76	(-2.47)
다우(23일)	11,298	(-0.37)
나스닥(23일)	2,135	(-0.71)
닛케이	16,163	(-0.11)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38엔	(-0.01)
유로 달러 환율	1.2772달러	(-0.16)
3년만기 회사채	5.09%	(+0.02)
블룸리	4.48%	(-0.01)

光銀 총대출 8조원 눈앞

중기청 등과 금융협약 中 申 대출 늘려

광주은행이 사상 첫 총대출 규모 8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총대출 7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6개월만인 이날 현재 총대출 7조8천700억원을 달성해 8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은행측은 오는 11월까지 총대출 8조억원을 달성하고 연말까지는 2천억원이 많은 8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2003년말 5조원 시대를 연 뒤 2004년말 5조5천억원, 2005년 6조7천억원의 총대출을 기록했다.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및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금융지원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확대한 것 등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취업자수 광주 12% ↑ 전남 5% ↓

광주·전남 2000~2005년 고용동향 분석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최근 5년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전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00~2005년 광주와 전남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취업자가 2000년 55만3천명에서 2005년 60만4천명으로 11.9%가 증가했다. 이중 남자는 32만명에서 35만1천명으로 9.7%, 여자는 22만3천명에서 26만8천명으로 15.0%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남의 취업자는 2000년 98만1천명에서 2005년에는 93만1천명으로 5.1%가 감소했다. 남녀별 감소폭은 여자가 5.9%로 남자(4.4%)보다 다소 높았다. 또 같은 기간 실업률은 광주의 경우 2000년 6.6%에서 2005년 4.3%로, 전남은 3.3%에서 2.3%로 모두 감소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자동차 긴급출동 보험료 인상

이용 횟수도 제한... 운전자 부담

자동차 사고나 고장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이용이 제한돼 운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제일화재는 내달 1일부터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자동차 연식에 따라 3~5년된 차량은 1만9천원으로 2천1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6년 이상을 신선했 2만1천300원의 보험료를 받기로 했으며 2년 이하는 1만1천700원으로 100원 인하한다. 현대해상은 지난 1일부터 긴급출동서비스 가운데 견인과 비상급유 서비스 이용 횟수를 연간 5회로 유지하면서 하루 이용 횟수는 1회로 제한했다. 또 외제차의 경우 차량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1~1.5t 화물차의 긴급견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10일 긴급견인 서비스 특약을 신선했 견인 거리 40km 무료에 1km 초과 때마다 2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차량 연식에 따라 3년 이하 차량은 1만7천600원, 4~6년은 2만5천140원, 7년 이상은 2만7천360원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기존 10km 무료 견인 특약과는 별도로 만든 특약으로 고객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며 “기존 특약의 보험료를 올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사-여성경제인협회 공동주최 ‘여성경제인 포럼’... 김방희 생활연구소장 특강

“앞으로 10년간은 저성장 시대 마른 수전도 쥐어짜는 경영을”



〈김방희소장〉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저면할 불확실성, 저성장, 산업구조조정 등 3대 과제와 싸워 이겨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24일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로 광주전남지회가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 19회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김방희 생활연구소장은 ‘불확실한 경제에서 살아남는 법’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적으로 금융불안, 기업실적 부진, 정부의 경제운용능력 미흡과 대외적으로 북핵문제, 고유가·환율하락 등의 변수 때문에 앞에서 거론한 3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김 소장의 처방전은 조기경보제도와 위험관리시스템의 가동이다. 자금조달에 빨간 불이 켜지거나 신용경색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자금조달방법, 부채상환, 자산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 두가지 처방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저성장 기조도 기업실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김 소장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8% 이상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IMF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저성장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려면 마른 수전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밀착형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소장은 향후 잘 되는 기업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기업은 더욱 어려워져 산업구조조정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



24일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한 ‘제 19회 여성경제인 포럼’에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김방희 소장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봤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자신의 사업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 도태가능성이 큰 업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블루오션 업종에 관심을 갖고 위험부담이 크지만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에 과감히 도전하는 모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경우 각종 적립형·연금형 금융상품에 주목하고 직접투자 대신 간접투자로 눈을 돌릴 것을 제안했다. 내년부터 펀드시장에 대한 규제가 풀릴에 따라 자신의 여유자금에 맞춰 적절한 펀드를 선택할 경우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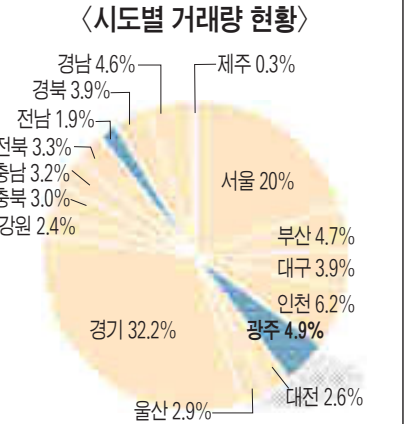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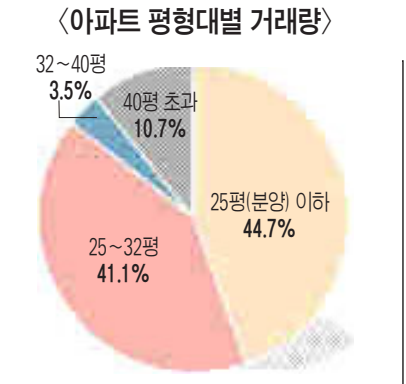
것이라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신화는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서울 강북지역의 집과 지방의 혁신·거점도시의 땅은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SPI-1357(정책정보전달시스템) 시연도 마련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국 아파트 13만가구 실거래가 공개 의미

가격 정보 가이드라인 역할 ‘담합차단’ 시장투명성 확대

건설교통부가 24일 공개한 전국 12만9천건의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은 향후 아파트 거래의 기준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수요자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매도자 중심의 거래 방식 변화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가격 왜곡현상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거래 실거래가 중심 재편 = 이번 실거래가 공개로 인해 그동안 가격 담합과 왜곡으로 논란을 빚어온 주택시장이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물론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중개업소를 통해 제공하는 시세도 자연스럽게 실거래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거래시기에 따라 바뀌는 실거래가격 정보가 신고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공개돼 사실상 거래가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동안 호가의 하

방 경직성으로 인해 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시세가 전반적으로 뒤늦게 반영되는 폐해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거래가 3·30대책 후 하락세 뚜렷 = 3·30대책 이후 광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지역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뚜렷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도권은 강남 3개구(강남, 서초구, 송파구)의 평당 평균 거래가가 지난 3월 2천252만원에서 6월은 1천927만원으로 5.4% 감소했다. 거래건수도 3월 2천491건에서 6월에는 503건으로 급감했다. 평형별로는 25평형대 이하 소형이 3월 2천551만원에서 4월에는 평당 2천402만원(-5.8%)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는 3·30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방침으로 중소형 재건축 아파트들의 호가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 부산 등 6대 광역시의 거래건수도 3월 1만2천905건에서 6월에는 9천170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평



당 거래 가격은 지난 2월 405만원에서 3, 5, 6월에는 평당 399만원(4월 평당 404만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는 정확한 가격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료가 더 쌓이면 공개범위를 소규모 단지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층별, 위치별 가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삼성생명 호남지역사업부 여성가장창업 69호점 오픈

삼성생명 호남지역사업부는 24일 김희자(40·광산구 산정동)씨 까망머리 미용실에서 여성가장창업 69호점 오픈 지원식을 가졌다. 지난 2002년부터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해온 삼성생명은 FC(보훈 설계사)들이 신계약 1건 체결마다 200원의 기금을 조성, 월 1명의 여성가장을 선정, 1천500만원의 창업자금을 무상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0호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30개 도시에 총 69호점의 창업점을 오픈, 10억3천500만원의 창업자금을 무상 지원했으며, 추가로 31호점에 4억6천500만원의 창업자금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창업점부터는 창업 및 경영컨설팅 전문 NGO인 ‘사회연대은행’과 ‘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창업지원뿐 아니라



김희자씨의 건성을 기원하며 창업예 커피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효남 월곡2동장, 정인식 삼성생명 상무지점장, 김희자씨, 김재열 삼성생명 호남지역사업부장, 이준호 광산구 사회복지과장.

성공 경영을 통한 경제지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전후 1년간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정주건설*	토목기사 경력 사원모집	초대졸/경력2년	2800~3000	08/26	062-430-3233
LG전자서비스*호남센터	[취업/교육비지원]Digital 기전제품 수리과정 교육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6	062-510-6190
한국텔레콤*메이커협회	SK 텔레콤 직영점 매장관리 남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28	062-956-7474
㈜크리에이티브*광주팀	정규직 영업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8	062-952-0863
에이아이에스*그룹	[신세계백화점] 판매 및 매장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2년	1800~2000	08/28	02-461-1505
비브라운코리아	Sales Technician(의류기기 영업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0	02-3459-1914
하남전기*	생산관리, 품질관리, 연구개발, 생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954-0182
대산기업	광고영업 및 영업업무 보조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8/31	062-383-0011
에이비	건축공사 현장 공사과장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8/31	062-944-5252
케이아이엔씨*광주지사	경리 및 사무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350-6577
서울항공여행사	배낭여행 업무 담당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225-3636
공전제과	디자인 / 매장 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222-3477
호텔 프리드	[프리드 호텔] 모집공고(연회부, 프론트, 경리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2	062-654-2301
H&T아웃소싱시스템	[HNT]SK텔레콤 114 정규직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02	062-350-633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개점 11돌 맞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전우만 대표

“지역사회에 보탬되는 경영 고객들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광주신세계백화점(대표 전우만·사진)이 25일로 개점 11주년을 맞는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미래성장동력인 마트 신축, 백화점 전종 리뉴얼 등을 통해 ‘복합쇼핑타운’을 탄생시키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우만 대표는 “복합쇼핑타운이라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창출, 고품격 서비스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우선과제로 선정해 지역친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 광주법인으로 개점한 광주신세계는 그간 지역친화경영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지역친화모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 광주를 대표하는 유통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영성과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4대 지역친화사업을 꼽을 수 있다. 출발 당시 장학사업, 지역상품 판로확대, 문화·예술 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 4대 지역사업을 꾸준히 진

행해온 결과 광주기업이라는 인식을 쌓는데 성공했다. 특히 2002년에는 주식을 상장, 확고한 지역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기업 활동에 활력소가 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광주신세계는 1천200억원을 투자해 백화점 인근 5천400여평에 마트를 오픈했다. 또 장학사업을 통해 1천598명에 9억9천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지역내 인재 양성에 앞장섰는가 하면 지역내 우수한 생산품을 발굴해 전국의 신세계백화점과 마트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사장·백남준 등 대가들의 작품관과 신세계미술관, 환경캠페인 등으로 지역민과 호흡해온 자취도 두드러진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개점 11주년을 맞아 25일부터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진행한다. ‘추억의 가을사진 공모전’ 수상작전, ‘Young 광광 페스티벌 100% 당첨 경품대추제’, ‘개점 11주년 상원감사 11대 빅브랜드 초대전’ ‘섬, 역사문화 기행전’ 등을 마봉사활동 4대 지역사업을 꾸준히 진

‘사행성 게임’ 퇴출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경품용 상품권 5,000억어치 휴지조각 소비심리 위축·일자리 5만개 사라져

급팽창해온 사행성 게임 시장이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로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트렸다는 비난에 경품용 상품권 폐지, 사행성 게임장 허가제 전환과 대대적인 단속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의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문제는 사행성 게임장 시장이 제도상 양성화는 됐지만 운영방식과 거래방식은 음성적인 탓에 정확한 시장 규모조차 파악 안 되고 있는 사실이다. 사행성 게임장 시장이 무너질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이 약 1만5천개 정도이고 상품권 발행한도가 1조원이지만 회수분반금 재발행되는 구조 탓

에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누적 기준으로 30조원 가량이 발행했다는 점도다. 다만 사행성 게임장 시장이 죽게 되면 게임장장 환전소에 있던 고을 인력과 상품권 발행·유통업체 및 오락기 제조·유통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 중 일부가 일자리를 잃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게임장당 평균적으로 2명, 환전소에 1명이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를 인원만 5만명 정도가 되는 셈이다. 우려되는 대목은 소비심리다.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될 경우 현재 약 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유통중인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고, 게임장의 대거 폐업과 상품권 발행업체의 연쇄부도, 그리고 검경의 단속과 세무조사 등 일련의 강경책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없지 않다. /연합뉴스